

목포시, 범죄도시 오명 벗기 총력전

지역안전지수 4년 연속 최하위...협업팀 구성 대책 마련 '동네 안심순찰단 운영' 등 5대 범죄 예방 활동 강화키로

목포시 안전지수는 범죄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가운데 범죄 분야는 5등급으로 4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했고, 생활안전·자살·화재·교통사고·감염병 분야는 3등급으로 전년도 대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발표된 지역안전지수에 따르면 2018년 목포에서는 3033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생활안전 1만7195건, 자살 56명, 화재 233건, 교통사고 23명, 감염병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목포시는 지난달 27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보고회를 갖고 교통사고, 생활안전, 화재, 감염병 4개 분야에 현재 3등급인 지표를 10%씩 줄여 2등급으로 향상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우선 목포시는 '1분야 1대표 시책'과 '지역안전지수 개선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해 가면서 대책회의를 정례화

시켜 분기별 1회씩 개최하고, 3개 기관 16개 부서로 안전지수 개선 협업 팀을 구성·운영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지수를 개선시키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목포시는 전국 75개 시 가운데 최하위인 범죄도시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시민 자발적 참여를 통한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동 자생조직간 협력을 통한 '동네 안심 순찰단'을 운영해 골목길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취약 공간을 주민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는 CPTED(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사업도 함께 펼쳐나가기로 했다.

목포경찰서도 최근 3년간 범죄 발생건수는 줄고 있으나 5대 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골목길 등 범죄예방 진단단 정밀진단 실시 ▲월 1회 이상 합동순찰 실시 ▲원룸촌 밀집지역 거점 근무 및 단련순찰 실시 등 5대



목포시는 최근 3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보고회를 갖고 지역안전지수를 향상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목포시 제공>

범죄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순천·여수 등 인근 지자체와 방범용 CCTV와 AVNI(자동차박기) 현황을 비교 분석해 개선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순주 목포시 부시장은 "목포시와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정책적인 노력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해진다면 범죄도시의 오명 탈피는 물론 안전지수도 개선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안전지수개선 협업팀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 '사랑의 밥차' 오늘부터 재개

목포시 '잠 좋은 사랑의 밥차' <사진>가 동절기 3개월 동면을 끝내고 5일부터 재개된다.

밥차는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되며 관내 저소득층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주 1회(화요일) 무료로 점심이 제공된다.

특히 자원봉사자 재능기부로 건강검진, 웃음치료, 국악 공연, 이·미용 서비스도 함께 제공돼 어르신들의 소통과 만

남의 장소로도 사랑받고 있다. 이혁영 목포복지재단 이사장은 "사랑과 정성으로 마련한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건강 운동과 오락을 통해 작은 행복을 드릴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시작된 사랑의 밥차는 지금까지 총 218회에 걸쳐 10만7000여명의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복지재단, 저소득층 자녀에 책가방·안경 지원

목포복지재단(이사장 이혁영)이 새 학기를 맞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000만원 상당의 책가방과 안경을 지원했다.<사진>

지원 학생은 초등학생 41명, 중학생 33명, 고등학생 26명 등 100명이다.

한편 복지재단은 지난해에도 저소득 가구 아동 운동화지원,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 학교 밖 청소년 생활개선지원, 청소년 쉼터(남·여) 생필품 지원 등의 사업을 펼쳤고, 위기가구에 대한 학비와



의료비 지원, 복지사각지대 학생 교육구입 지원 등도 추진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1000만 관광객 유치 성패, 음식에 달렸다"

김중식 시장 '맛의 도시' 선포식 앞두고 대책회의·현장점검

목포시가 '맛의 도시 선포'와 '해상케이블카 개통'을 한 달여 앞두고 지난 2일 당면 현안사업 대책회의를 갖고 현장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전략회의를 개최해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김중식 시장은 "올해 1000만 관광객 유치의 성패는 음식에 달려 있다"고 선언하고 "사실상 '음식문화 혁명'을 이루는 일"이라며 치밀하면서도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목포시에 따르면 다음달 12일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맛의 도시 선포식이 열린다.

식전행사로 박애리와 팝핀 현존 공연과 죽전 송홍범 서예가의 휘호쓰기에 이어 서울대 문정훈교수의 '이래서 대한민국 맛의 도시'라는 맛의 도시 목포의 당위성과 역사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맛의 도시 목포 선언은 당초 시장이 선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음식명가 4명 인물이 선포하는 등 색다른 방안으로 추진된다.

이어 미술쟁, 임정식 셰프 등 4명이 나와 목포 9미 요리를 직접 시연하면서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기획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맛의 도시 선포식이 동네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의례적인 행사진행을 완전 배제하고 전국행 사업에 품격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해상케이블카가 개통돼 관광객이 몰려오더라도 현재의 음식점 서비스 수준이나 식당 업주들의 마인드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불친절과 바가지요금, 위생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자정 결의대회나 캠페인 전개, 업주 친절교육 등과 같은 진부한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관광버스 기사의 무리한 사례 비 요구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보건의료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비난을 샀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보건소 직원들의 명확한 목표의식과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한 뒤 "상인 스스로가 청결하고 친절하지 않으면 즉 '변하지 않으면 모두 다 공멸한다'는 강력한 결의와 함께 절박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강력한 후속조치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전 행정력을



김중식 목포시장이 지난 2일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집중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시장은 "목포의 풍부한 수산물과 해산물을 바탕으로 맛의 도시가 성공하면 곧바로 식품산업과 연계가 가능해져 전국 제1의 수산식품수출단지는 물론 대양산단 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시 실패를 경험했던 만큼 이를 교훈 삼아 음식문화 혁명에 도전한다는 각오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공직자들의 의식 중무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순주 부시장은 "전 직원 식당 방문 보고제를 도입해 남은 기간 동안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해상케이블카 개통 관련 보고회에서는 고하대로(목포대교-신안비치 3차 아파트 구간) 차선 확장과 유달산 주변 도로 정비, 기 설치된 도로표지판에 해상케이블카 이정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와 주차장 확보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지역관광지원센터 공모 발빠른 대응

무안·신안군과 컨소시엄 구성

목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19년 지역 관광 지원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전남도를 주축으로 목포시·무안군·신안군 등 3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관광지원센터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센터구축에는 올해 20억(국비·지방비 각 10억)이 투입되고 2020~2023년까지 매년 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 센터는 관광스타트업 창업과 관광 기업 육성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은 전남도 문화관광재단이 맡는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지역 관광지원센터가 들어설 입후보지로 기업은행 2·3층, (재)서남권 수산물 유통센터, 목포시 KT 플라자 9층 등 3개 후보지를 추천했다.

이에 전남도는 문화관광재단과 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3개 시군에서 추천한 각 후보지들의 시설 기본 현황, 접근성, 주변 환경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목포시 KT 플라자 9층을 최종 센터 후보지로 결정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오는 25일 서류 심사와 4월 26일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유치 여부는 4월 말 나온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